

그라시아스(Gracias) 아산메디컬센터~

글 김혜진 아산재단 경영지원팀 / 사진 유도임 서울아산병원 중환자간호팀



의료봉사 둘째 날, 빈민지역인 '아떼'에서의 진료를 앞두고 의료봉사단과 현지 봉사자들이 자리를 함께했다.

지난 5월, 원내 게시판에 '2019년 페루 해외 의료봉사단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의료봉사인데 사무직도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의문을 안고 담당직원에게 연락했더니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나도 모르게 어디선가 자신감이 솟구쳐 신청서를 제출했다.

5월 28일 화요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총 여덟 번의 사전 회의를 진행했다. 나는 총무와 어린이 봉사팀을 맡았다. 해외봉사 경험이 풍부한 교수들과 간호사들이 참여해서 준비 과정은 순조로웠다. 페루의 공용어가 스페인어인 점이 걱정이었지만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와 함께 봉사에 참여하는 정 교수의 자녀가 스페인어를 구사할 줄 알아서 틈틈이 학습시간을 갖고 약전(藥典, 의약품 제조 기준서)과 의학용어 등 현지에서 사용할 스페인어들을 정리해 안내책자를 만들었다. 안내를 맡은 현지 선교사들은 통역이 가능한 학생들을 섭외해주기로 했다.

이번 페루 의료봉사에는 신경외과 나영신 교수를 단장으로 정훈용 교수와 중환자·외상외과 홍석경 교수, 이비인후과 강우석 교수 등 4명의 의사와 6명의 간호사, 나를 포함한 2명의 사무직원, 10명의 울산의대 학생 등 모두 28명이 참여했다. 비행기를 이용한 이동을 포함해 봉사 일정은 8월 3일(토)부터 8월 12일(월)까지였는데 9월 9일(월)의 국가고시를 앞둔 의대생들도 있었다. 이 글이 <아산의 향기>에 실렸을 때는 시험이 이미 끝난 후일 텐데, 멀리 남미까지 가서 봉사하는 마음가짐이라면 수월하게 합격했으리라고 믿는다.

페루에 도착 못한 짐가방 3개

8월 3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날이 여름휴가 성수기여서 비행기표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다. 우리는 3시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두 팀으로 나누어 페루행 비행기를 탔다. 직항이 없어서 미국을 경유해야 했다. 가수 선미의 '24시간이 모자라'라는 노래를 생각나게 하는 장거리 비행이었다. 출발한 지 26시간을 지날 때쯤 페루 수도 리마의 호르헤차베스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피곤함도 잠시, 수화물 찾는 곳에 갔는데 짐 3개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공항 직원의 말에 다들 정신이 번쩍 들었다. 각자 맡은 짐을 체크하고 오지 않은 짐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시작했다. 개인 물품은 기내용으로만 챙기고, 일인당 2개(각 23kg)의 수화물에는 봉사에 필요한 약품과 진료 재료, 어린이 봉사용 물품 등으로 가득 채워왔는데, 잘 오던 짐 중에 3개가 마이애미공항을 경유하

면서 함께 오지 못했다. 다행히 급히 필요한 물품을 넣은 캐리어가 아니어서 도착하는 대로 숙소로 보내달라는 신고 절차를 마쳤다.

입국장으로 향하는 우리의 발길을 한 번 더 붙잡은 건 약품이 가득 담긴 캐리어들이었다. 공항 직원이 모든 가방을 열어보라고

요구하면서 무슨

약인지, 어디에 쓰는지 등의 질문과 검사가 계속됐다. 우여곡절 끝에 입국장을 나온 우리는 숙소에 짐을 풀자마자 쉴 틈도 없이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바로 진료를 시작했다.

첫날은 페루에 사는 우리 교민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진행했다. 현지 한인 교회의 1층을 재배치해 예진팀과 진료팀, 검사팀, 약제팀, 어린이 봉사팀을 구분해 자리를 마련하고 진료를 시작했다. 복장은 사전 제작한 단체 티셔츠와 홍석경 교수가 지원받은 수술복으로 통일했다.

어린이 봉사팀을 맡은 나는 출발 전의 프레젠테이션에서 날짜 별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발표했다. 해외봉사 경험이 많은 홍석경 교수가 "어린이 봉사는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크니까 순발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해주었다.

첫날은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에서 지원받은 스티커와 바람개비를 준비하고, 한국에서 가져온 과자와 사탕 등을 진료를 마친 교민들과 수줍어하는 아이들에게 제공했다. 출국 전에 다 같이 모여 준비물을 챙길 때 어느 순간 진료 재료나 약보다 과자, 사탕 같은 물품 비중이 늘어나 난감한 순간이 생겼지만 굴하지 않고 (?) 열심히 담은 보람이 있었다. 교민들에겐 초코파이가 최고 인기 간식이었다.

봉사를 마무리하고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는 파트 별로 공지 사항과 보완사항 등을 공유하며 완벽한 봉사를 위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숙소로 돌아왔지만 안타깝게도 내과간호팀에 근무



외과 홍석경 교수(정면)가 지방종 제거 수술을 하는 모습.



주민들을 진료하는 이비인후과 강우석 교수(위)와 소화기내과 정훈용 교수(아래).

하는 윤슬기 간호사가 공항에 다시 가야 했다. 입국 때 함께 오지 못한 3개의 짐을 숙소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 중 1개의 캐리어 안에 들어있는 약 때문에 수화물 주인이 공항을 방문해야 한다는 연락이 온 것이다. 윤 간호사는 자정이 돼서야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이른아침부터 진료 기다리는 주민들

폭염이 기승을 부리던 한국과 달리 남반구인 페루는 가을과 겨울 사이의 기후여서 시원하다 못해 추웠다. 숙소에서 난방과 온수를 기대한 나 자신을 반성하며 두 번째 아침을 맞았다.

이날은 리마의 대표적 빈민지역인 ‘아페’에서의 의료봉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차로 40~50분 이동해 아페 지역에 있는 기아대책 사무실에 도착했다(기아대책은 50여 개국에 봉사단을 파견해 굶주린 이들을 구호하는 NGO다). 이미 문 앞에는 무료 진료를 받으려는 주민들이 길게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사무

실은 3층 건물에 앞마당이 있는 구조였다. 1층에는 예진팀과 어린이 봉사팀, 2층에는 약제팀과 소아과, 3층은 진료팀과 검사팀을 배치했다.

이날부터는 선교사가 섭외한 대학생 통역 10명이 합류해 원활한 진료를 위해 힘을 보탰다. 오전부터 사람이 붐비면서 대기 시간이 늘어났다. 어린이 봉사팀을 2개 조로 나누어 한 팀은 아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는 풍선과 바람개비를 만들어주고, 다른 팀은 어린이용 타투 스티커를 아이들의 얼굴과 손에 붙여주었는데 인기가 엄청났다.

점심을 먹고 나서 잠시 사무실 앞에 나와 동네를 바라보았다. 산들이 많은데 그냥 민둥산으로 녹색을 찾아볼 수 없이 온통 잿빛이었다. ‘의료봉사도 필요하지만 환경개선 봉사가 더 시급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씁쓸한 마음을 뒤로한 채 오후 진료가 시작됐다. 아이들이 꽤 늘어나 축구와 색판 뒤집기, 2인3각 달리기, 수건돌리기 등으로 미니 운동회를 열었다. 어린이 봉사팀에는 기아대책의 봉사자들도 함께했는데 알고 보니 이들은 어릴 때 기아대책으로부터 도움을 받았고, 성장한 뒤 봉사자로서 자신들이 받은 사랑을 돌려주고 있었다. 나눔과 봉사에는 끝없이 순환하는 속성이 있는 것 같았다.

셋째 날의 의료봉사는 ‘아마우파’ 지역의 학교에서 진행했다. 1층에 교실들이 있어서 파트별 구분이 어렵지 않았고, 작은 운동장을 갖추어서 어린이 봉사팀에게는 안성맞춤이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화장실에서 물이 나왔다(전날의 아페 지역은 물이 나오지 않아 화장실 사용이 어려웠다).

어제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회의한 결과 “풍선과 바람개비는 진료가 끝나고 나눠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수렴해 오전에 진행하지 않았다. 우선 아이들의 사랑을 독차지한 타투와 페이스페인팅을 진행했고, 이날 비장의 무기인 사진인화 서비스를 진행했다. 사진인화 요청 줄이 진료 줄보다 길었다는 과장된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반응이 기대 이상이었다. 이제 다들 능숙해져서 모든 봉사가 순조롭게 진행됐다.

마지막 날의 의료봉사는 현지 교회에서 진행했다. 다들 한 명이라도 더 진료하겠다는 마음이 통했는지 봉사기간 4일 중에서 가장 늦게까지 진행했다. 모두가 체력을 다 쏟아 부은 날이었다.

숙소에 돌아와 진행한 마무리 회의는 새벽 1시가 돼야야 끝났다. 회의 중에 특히 정훈용 교수가 한 얘기에 모두 공감을 표시했다. 정 교수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방문해서 진료하는 것도 좋지



엄마를 따라온 아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주고 바람개비를 나눠주었다(왼쪽). 봉사 일정을 마치고 페루의 명소인 마추픽추를 찾은 봉사단원들. 가운데줄 중앙, 페루의 전통 망토를 두르고 알파카 인형을 들고 서 있는 이가 필자다(오른쪽).

만, 그건 아무래도 효과가 일시적이다. 여건이 된다면 특정 나라, 특정 지역을 정해 지속적으로 봉사를 진행해서 그 지역의 질병과 진료 체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꾸준히 관찰하는 것이 해외 의료 봉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일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수술과 시술 14건, 검사 138건 진행

최동준(울산의대 의학과4) 학생은 “페루에 가기 전에는 해외 의료봉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생각했다. 막상 와보니 봉사 경험에 풍부한 의료진만이 아니라 현지 교민들과 통역을 도와준 학생 등 여러 사람들의 노력과 전문성이 적재적소에서 발휘되는 것을 확인했다. 의학적인 지식에 더해 봉사정신을 배운 값진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나흘 동안 내과 224명, 외과 192명, 이비인후과 336명, 신경외과 237명, 소아과 240명 등 1,228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14건의 수술과 시술, 138건의 검사도 진행했다. 우리를 찾아온 주민들 중에는 만성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았고, 날씨 탓인지 감기 환자도 적지 않았다. 구충제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약품이었다. 한 가족 모두의 대변에서 기생충이 나오기도 했기 때문이다.

4일간의 의료봉사를 마치고 기진맥진한 우리는 재충전을 위해 대표적 잉카문화 유적지인 ‘마추픽추’로 이동했다. 영국 BBC가 선정한 ‘죽기 전에 가봐야 할 여행지’ 중의 한 곳을 직접 보고 느낀 점은 글로 다 풀어내기가 어렵다. 몇 년 전 ‘꽃보다 청춘’이라는 TV 프로그램에서 페루를 찾았는데 안개가 끼어 마추픽추를 못 보나 싶더니 구름이 걷히면서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있었다.

다행히 우리가 방문한 날은 날씨가 맑았다. 마추픽추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세계자연유산’에 모두 지정된 곳으로 마추픽추는 ‘늙은 봉우리’, 와이나픽추는 ‘어린 봉우리’라는 뜻이라고 한다.

와이나픽추는 일일 인원 제한이 있어서 입장이 어려웠다. 이렇게 높은 지대에 도시를 만든 잉카인들의 치밀함과 비밀스러움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큰 돌들의 운반과 돌들의 각을 딱 맞춘 정교한 재단은 아직도 미스터리다.

마추픽추와 아쉽게 작별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장거리 비행을 대비해 가지고 온 두 권의 책을 읽었다. 김영하 작가의 에세이집 <여행의 이유>와 신용목 시인의 시집 <나의 끝저창>이었다.

신용목 시인의 ‘검고 푸른’이라는 시에는 ‘모든 계절은 습관이 되고, 모든 날들은 순서가 되는’이라는 구절이 나온다. 습관적으로 보내던 계절을 잠시 정지시켜 해외 의료봉사라는 새로운 계절을 경험했으므로 서울에 돌아가면 현실의 순서에 맞춰 열심히 살아가자고 다짐했다.

김영하 작가는 ‘여행은 내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잠시 잊어버리려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봉사에 참여해보니, 봉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움을 받는 행위 같았다. 봉사자들이 피곤하지 않고 행복하다고 말하는 이유를 페루에 와서 비로소 알았다. 마지막으로 하계휴가는 보통 5일을 가는데, 무려 8일의 근태신청서를 아무 말 없이 결재해준 직장상사들과 내 빈자리를 열심히 채워준 동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